

2020회계연도

법인 내부 감사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한신학원, 한신대학교, 영생고등학교)

감 사 김 재 석

감 사 김 영 민

[별지 제1호 서식]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한신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한신학원(한신대학교, 영생고등학교)의 2020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한신학원(한신대학교, 영생고등학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한신학원(한신대학교, 영생고등학교)의 2021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

2020년 4월 16일

학교법인 한신학원

감사 김재석

감사 김영민

피감사자 (입회인)

직명 이사장

성명 박상규

법인 내부 감사의 지적 및 권고사항

2021년 4월 16일 현재

I. 학교법인 한신학원

본 감사는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2020회계 연도 한신학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I. 인사·재정부분

1. 법인 자금 현황(각종 증빙자료)
2. 법인 인사 계약 상황(직원 신원, 재정 보증보험 가입여부확인)
3. 직원 급여대장
4. 각종 지출결의서(회의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와 영수증
5. 한신학원 1/200헌금 사용내역 및 한신평위 사용분에 대한 진행경과 및 대처방안
6. 법인소유 유희자산 활용방안(수유리 도로편입부지 토지사용료 징수방안) 등

II. 행정부분

1. 법인 재산관리대장
2. 대·내외 공문 발·수신대장
3. 법인 인감 및 직인관리대장
4. 직원근태관리(출근, 조퇴, 휴가 등 기록 관리여부)
5. 이사장 사무인계·인수서 비치여부 등

III. 이사 회의록 적정기록 여부(녹취, 오탈자 가필여부)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I. 재정부분

1. 법인자금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준거하여 관련 계정의 정리, 장부의 기장, 입출금 전표 및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있으

며, 각종 기금이 예치은행통장과 잔고증명이 일치하며, 수입지출 내역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이전에 다소 미비했던 각종 중요서류가 잘 구비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법인의 각종 주요문서 관리대장의 기록 관리, 보관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결재권자인 이사장의 보다 세심한 점검과 확인을 권고합니다.

2. 법인보유 유동자금 중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예금 중 한 달 이내에 사용할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치금에 대해 가급적이면 한 달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자금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통예금 통장과 인감은 국장과 직원이 분리보관하고,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국장이 분리 보관하여 관리하기를 권고합니다.

II. 인사부분

1. 지난 회기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한 신원 및 재정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음을 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사고예방차원에서 신원 및 재정보증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해 두기를 권고합니다.

2. 각종 지출결의서가 규정대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특별히 결재서류는 전일 마감한 서류를 당일 오전 중으로 결재하여 법인사무가 누적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행정부분

1. 지난해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각 노회에서 현금한 한신학원 1/200 의무헌금 중 2018~2019년 회기 중 법인에 송금하지 않고, 한신개혁 특위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52,982,893원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 법인에 조속히 송금해 주도록 총회에 4차에 걸쳐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총회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 2020년 12월 2일자로 발송한 공문에 대해 지난 4월 14일자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회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는 1/200 헌금이 전액 한신학원에 전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현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

지 않고 오히려 의무헌금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한신학원 이사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적반하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본 감사는 총회가 이 현금반환 요청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작년 12월 비대면 이사회 때 제가 제시했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혁특위 요청 당시의 위원이 26인이었으므로 1인당 2,038,000원씩을 분담하여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제안마저 거부한다면 당시 개혁특위와 실행위원회에 대해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처럼 유아무야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교단이나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교단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교단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헌금이나 후원금은 목적에 구속되는 돈입니다. 지정 후원금이나 헌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순간, 그 자체가 범죄이자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사용목적 외로 전용하면 업무상 배임죄보다 가중한 횡령죄가 되고 개혁특위나 실행위원회 모두 쌍벌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총회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2. 총회가 결의하여 각 노회에서 2021년까지 한신학원에 보내주게 되어 있는 1/200 헌금의 납부율이 2.28현재 75%로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총회가 결의한 대로 미납된 의무헌금을 조속히 수납할 수 있도록 총회와 각 노회에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가을 총회에서 1/200헌금 연장 헌의안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이 노회에서 총회를 거쳐 법인으로 전달받지 말고 종전과 같이 각 노회에서 직접 법인사무국에 송금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법인이 보유중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지목이 임야로 된 토지가 15건, 도로로 편입돼 있는 토지가 13건으로 총 28건의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자문을 구해 법인이 보유중인 기본재산을 수익성자산으로 전환하여 법인운영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지난해 중 경기캠퍼스가 사용 중인 국유재산 사용면적 1,078㎡(326평)에 대한 임대료를 11,035,580원을 납부했고, 서울캠퍼스가 사용 중인 국유재산 89㎡(26.8평)에 대한 임대료로 7,516,850원을 납부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강북구소재 법인소유 토지 3,403㎡(1,029평)의 도로편입에 따른 토지사용료 보상청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은 한신학원이 사용 중인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법인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법인이 사용 중인 국유재산을 불하받거나 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고합니다.

4. 지난해 정기 감사 중 지적했던 이사장 사무인계·인수서와 사무직원의 직무기술서는 잘 구비해 놓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사장 사무인계·인수업무와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업무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사회 회의 시 반드시 녹취를 하여 이사회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률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사 기부금

제96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한신학원 이사는 매년 오백만원 이상을 법인재정에 기여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회계 연도에 팔천칠백오십만원을 일반 기부금으로 납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미 납부된 삼천칠백오십만원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법인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사회비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납부해 주시고 있지만 일부 이사회비 납부가 지체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미 납부를 완료한 이사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회비 납부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시기를 권고합니다.

7. 법인 사무국은 이사회 안건 중 특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안건들은 회의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관 제27조 2항에 명시된 대로 이사회 소집 7일전까지 이사들에게 심의자료와 함께 통지하여 중요한 안건들이 조속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학교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사전에 의제 안건들이 이사들에게 기일 내에 전달되도록 유념해 주시고, 기한이 촉박한 의제들은 차기로 연기하여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II. 한신대학교

1. 대학의 생존 전략방안 모색

학교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책마련에 학내구성원 모두의 중지를 모으고 특히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신입생 정원 미달사태를 여하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실현가능한 전략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학과의 신입생미달 사태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종립대학으로서 학교의 위상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 데 대해 우리 모두가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 목회자 수급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단의 존립과 대학의 생존과도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입생 충원을 감소는 정부의 대학평가에서도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점을 감안,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의 중도 이탈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3대 기본요소인 ‘신입생 정원축소’와 ‘전임교원 확보율’,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뉴노멀시대를 맞아 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조정방안에 따라 실현 가능한 부문부터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학내구성원간의 자구노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루어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소멸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감염예방과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도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파생되는 학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2. 재정 운용 및 규정관리 부문

교내 각 부처는 사전에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출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경안을 이사회 의 승인을 거친 후 집행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수 감소에 따른 등록금수입 감소로 인해 대학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시설 개보수 작업에 외부발주를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교내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비절감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향후 대학구조조정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에 대한 상벌규정을 세분화하여 운영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종 행사, 특히 국제행사 개최가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글로벌피스센터 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집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행사개최의 적부와 타당성을 잘 검토한 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학교의 물품구매 규정 제5조 2항에 의하면 “구매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2020학년도 한신대학교 구매입찰 현황 자료를 보면 총 21건의 입찰 중 33%에 이르는 7건이 수의계약으로 구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으나 특히 정보관리팀에서 발주한 ‘한신대학교 클라우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약건이 예정가액 155천만원에 계약금액 1546백만원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음에도 현재 운용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감사가 추경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전산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바로 제출하지 못하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제출한 것을 봐도 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완성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결재업무 등 제반 학사업무처리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물품구매 시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특히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때는 보다 세심한 업체선정과 엄격한 비교견적으로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클라우드 종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때까지 납품업체에 대한 잔금결제를 중지하고, 시스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과 보완대책을 강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학내소송 진행상황

지난 회기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교내 임대업체의 임대차 관련 소송현황에 대해 그동안의 경과사항을 청취한 바, 병점교사의 '아시아소통다문화센터'의 명도소송은 2020.11.12.일자로 원고 일부승소로 종결되어 2021.3.31.일자로 퇴거 완료되어 종결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대학혁신사업 사업비 감액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다음 변론기일은 2021.6.4.일로 지정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본 소송으로 인해 대학혁신사업비가 회수되어 학교에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의 '하루밥상'은 2020년 2월 7일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명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연체된 공과금과 미납된 임대료회수를 위해 지금까지 명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점유 중인 건물을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인도받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임차인들과 가급적 송사에 이르지 않도록 평소 임대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임대시설물에 대해 계약만료 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전달하여 법률상 분쟁에 대비하고, 임대차계약 시 적정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책정으로 학교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학내 시설물관리와 임대료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법률소송 경비 교비회계 지급에 관한 건

학교는 현재 대학혁신사업 사업비 감액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법률소송을 진행하여 교비회계에서 소송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에는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나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나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과 소송결과에 따라 소송경비의 교비회계 집행에 대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소송 발생 시에는 가급적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

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교수근태 관리현황 및 논문 제출현황

교수근태에 관한 사항은 “교원근무에 관한 규정”과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출근 일을 명시하고 있고, 교수별 트랙별 의무·의무강의시수(출석부, 성적표 등)와 논문의무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출근부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2018~2020) 전임교원 논문제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24명의 전임교원이 트랙논문 의무 미 이행자로 확인됩니다.

“교수업적평가관리 규정”에 의하면 트랙별 의무 미 이수자인 경우 “2년간 A급 논문 의무가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호봉 승급을 향후 2년간(차기 트랙주기동안) 정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교수 근태관리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수들에 관한 근태관리와 트랙논문 의무 미 이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당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제 교수와 연봉제 교수의 급여 현황에 의하면 호봉제 교수의 평균 연봉이 105,503,809원인 반면에 연봉제 교수의 평균연봉은 58,205,819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호봉제 교수와 연봉제 교수 간 연봉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6. 교직원 채용과 인사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을 하고 있어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 인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4월 12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한 바 있습니다. 3개 기관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을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 수준의 공개 위탁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동 협약안에는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담았는데,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며,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도 사무직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채용하고 있는 바, 학교는 교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가 선발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인사 및 채용과 관련한 잡음과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7. 학교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하여 교단산하 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2021년까지 1/200 헌금을 보내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대내외 모금활동과 유사학과 간 통폐합, 잉여인력감축 등 생존을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마련과 고비용의 교육시스템을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미국 다빈치연구소의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는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는 거꾸로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금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학교를 둘러싼 대내외환경은 대학의 생존과 가치를 심화시켰고, 극대화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냐 퇴보의 길로 빠져들 것이냐를 결정할 기로에 서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신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9. 서울캠퍼스의 독립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작성하시기를 권고합니다.

Ⅲ. 영생고등학교

1. 사무 감사 실시

1. 영생고등학교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서, 내부감사 결과 조치 결과보고서와 2021학년도 학교현황(2021.4. 1.현재) 보고 및 발전계획서를 검토하고 확인하였으며,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지도에 매진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2. 학교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3학년은 상시 등교, 1·2학년은 격주로 교차 등교하여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방역요원 4명이 교실과 급식실의 방역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학교 자체적인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 2020학년도 졸업생은 330명, 대학입시는 한신대 15명을 비롯하여 수도권 4년제 대학에 259명의 학생이 진학하였습니다.

4. 학교발전기금 중 장학금의 지급현황은 한신학원 이사장,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등 총 12개 기관(개인)에서 2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24,545,160원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2021학년도부터는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등록금 지급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학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에게 연 1백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지원기관과 금액이 상당수 축소될 소지가 있어 학생들을 격려하는 장학제도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5. 2020년 학사진행에 관한 지원금 중 고교학점제 일반고사업비 17,000,000원이 반납되었고, 창의혁신공모사업비 13,721,600원도 반납예정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업이 대부분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가급적 학기 초부터 모든 사업을 빠르게 실시하고, 반드시 겨울방학 전까지 모든 사업비를 정산 완료하여 소중한 지원금이 학생들을 위해 모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과 담당교사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각종 지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II. 감사의견 및 권고사항

1. 현재 실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루어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소멸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모든 교직원이 합심하여 지혜롭게 잘 대처해 가시기 바라며, 학교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염확산에 대한 방지대책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이나 편부모, 조손가정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없는지 잘 살펴,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 인프라 활용을 통한 진로 체험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와 진학에 대한 상담지원을 확대해 가시기 바랍니다.

3. 향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정원미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학교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권고합니다.

4. 코로나시대의 당면한 교육적 화두는 학습격차 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은 동기유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공부의 필요성과 목표가 설정돼야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기유발의 최적임자는 담임교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학생들과 늘 접촉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현실화된 학력저하 문제와 학업성취도 저하문제의 극복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대면수업에서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업과 달리 학습목표 도달을 점검하는 방식이 과제제출로 대신하게 됨에 따라 주어진 시간에 신속·정확하게 과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제출하면 되는 관계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제만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므로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인지 확인하여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습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사내용은 없습니다.